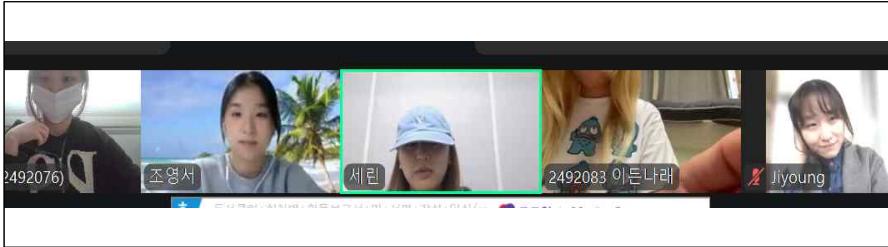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독서시대

1주차	일시	9월 30일 16 : 00 학술정보관 5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서영(2492076)	O
		이세린(2492072)	O
		조영서(2492067)	O
		이든나래(2492083)	X
	진도	도서명: 가녀장의 시대	진도페이지: 1p. ~ 84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조영서, 조서영, 이세린]	
		<p>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가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뒤집는 장면들을 보여준다. 또한 주인공인 슬아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부모를 직원으로 고용하는데, 이는 경제적 주체이자 가족 내 권력자가 된 모습을 상징한다.</p>	
		<p>서영 : 사실 이러한 가족 구조가 전통적이진 않기 때문에 ”딸이 경제적 주체가 되지 않았다면 가녀장의 시대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다.</p>	
		<p>영서 : 또한 이러한 가족구조에 대해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슬아의 아버지이자 웅이가 ”가녀장의 시대“를 쉽게 받아들인 점이었다.</p>	
		<p>세린 :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닌 웅이, 복희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개인을 존중하고 사소한 집안일을 포함한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슬아의 모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p>	
		<p>영서 : 또한, 웅이가 일해온 환경을 보면 꾸준히 어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 가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경험이 권력 구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밑바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p>	
		<p>서영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일시	10월 14일 16 : 00 비대면 줌 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서영(2492076)		O			
	이세린(2492072)		O			
	조영서(2492067)		O			
	이든나래(2492083)		O			
진도	도서명: 가녀장의 시대	진도페이지: 85 p. ~ 209 p.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서영, 조영서, 이세린, 이든나래, 주지영 교수님]</p>				
토론 내용	토론 내용	<p>서영 : “누굴 얼마나 만나봐야 진짜 충분하다고 느낄까. .복희는 그런 충분함 같은 건 영원히 없다고 말하려다가 만다.” 의 구절에서는 슬아가 오랜만에 한 데이트에 피로를 느껴 고민이 많아진 것이 느껴졌고 이를 복희가 엄마로서 슬아가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물로 보였다고 해석했다. “된장 보너스, 김장 보너스”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로, 이 가족의 독특한 분위기와 복희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복희의 오랜 생활 방식과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슬아의 모습이 ‘회사 제도’라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p>				
		<p>영서 : “각자 다른 것에 취약한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간다.”는 구절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각자가 잘하는 일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전까지는 슬아가 완벽한 인물처럼 느껴졌지만, 이 장면을 통해 복희가 슬아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로즈 시절이네.” 구절에서는 복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슬아가 일부러 단어를 정정하지 않은 장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구절에서는 ‘작가 이슬아’의 모습보다 ‘딸 이슬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p>				
		<p>세린 : ‘세상에 없는 다운의 엄마를 생각하며 읽고, 세상에 있는 복희를 생각하며 읽는다. 다운이 겪은 상실을 언젠가는 슬아 또한 겪게 될 것이다. 그럼 슬아는 다운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그동안 이 슬픔을 어떻게 참았느냐고.’ 이 구절에서는 책 속에서 다소 무감정하게 보였던 슬아가 사실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인상 깊었다고 했다. 또한 ‘네가 그렇게 혼자야? 그럼 지금 떡볶이는 누가 해주고 있는데?’이별 후 찾아온 미란에게 슬아가 건넨 말로 나도 평소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텍스트였던 것 같다.</p>				
		<p>나래 : “다 해봐야 할 것 같잖아. 안 누리면 손해인 것 같잖아.”라는 문장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이입되어 인상 깊었다. 20대 초반으로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존재하는데, 젊음의 가능성이 오히려 괴로움이 된다는 작가의 말에 공감했다. 또한 “그의 딸로 태어난 슬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장은 복희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슬아의 사랑이 느껴졌으며 이는 문장 자체의 흥미로움과 인물 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이유였다.</p>				

	일시	11월 4 일 16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6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서영(2492076)	O	
	이세린(2492072)	X	
	조영서(2492067)	O	
	이든나래(2492083)	O	
	진도	도서명: 가녀장의 시대	진도페이지: 210 p. ~ 347 p.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영서, 조서영, 주지영 교수님, 이든나래]</p>		
	<p>서영 : 복희가 “가모장 같은 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팀원들과 ‘장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복희는 그런 권력보다는 자신의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져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다. 또한 “언젠가는 슬아의 재주도 시대와 불화할지 모른다”는 문장을 통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단순히 개인의 재능보다 ‘적응력’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잘 몰랐기에 두렵지 않았다”는 구절은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용기와 순수함이 ‘모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성장의 출발점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어 특히 인상 깊었다.</p> <p>영서 : 슬아가 책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슬아가 이번에는 두려움을 통해 성장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동경하게 되었다.</p> <p>또한 중장년층이 꽃 이름을 빠르게 알려주는 장면에서는 은퇴 이후 여가와 지식 추구에 몰두하는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p> <p>마지막으로 웅이가 자신의 욕구보다 가족의 부탁을 우선시하는 장면에서는 가부장제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과정이 유머러스하게 드러나 흥미로웠다고 느꼈다.</p> <p>나래 : 슬아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복희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이 장면을 통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라는 미란의 말에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였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이 공감되었다. 이를 통해 나 역시 스스로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p>		

	일시	11월 18일 16 : 00 장소명 :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6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서영(2492076)	O	
	이세린(2492072)	O	
	조영서(2492067)	O	
	이든나래(2492083)	O	
진도	도서명: 가녀장의 시대	진도페이지:	348 p. ~ 521 p.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이든나래, 이세린, 조서영, 조영서]</p> <p>서영 : 웽이는 매주 로또 번호를 확인하지만 당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다음 주에도 또 복권을 산다. 나는 이 다음 부분, “서로가 서로의 수호신임으로 알지 못하는 채로 종교의 근처를 배회한다”는 표현이 특히 인상 깊었다. 웽이에게 수호신은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슬아가 칠판에 오늘의 글감이라며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적고, 어른들이 아주 열띤 토론을 했을 거라며 아이들과 웃음을 짓는 장면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내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p> <p>영서 : 복희에게 책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어른들이 책을 읽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책을 읽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책을 읽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머리는 제가 더 짧고요. 힘은 언니가 더 세요 (중략) 이렇게 되면 누가 여자 역할이고 남자 역할이죠? 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동성애가 민감한 주제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복희는 다름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복희와 같으면 세상에 혐오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문장이다.</p> <p>나래 : '정신승리하느라 고생이 많다, 야. 어렸을 땐 고집도 세고 남자다워 보였는데.' 웽이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친구 중 한명이 웽이에게 한 말이다. 아무리 세상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인상 깊었다. 또한 웽이에게 네 딸도 막 페미니스트 같은 그런 극단적인 부류냐고 묻는 장면을 보고 과거 이런 류의 질문을 들어봤던 일이 생각났다. 대외활동을 할 때였는데, 활동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는 질문을 받아 매우 불쾌했는데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었다. 그 때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씹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인상깊었다.</p> <p>세린 :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행위지.'라는 문자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위 문장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인상깊었다. 또한, '지구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무엇보다 좋은 팀이 되고자 한다.'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은 하나의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조서영 2492076	이번 학기에 독서클럽 팀장을 맡아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를 함께 읽고 토론했다. 혼자 읽을 때 놓쳤던 부분들을 팀원들과 나누며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작품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구조와 여성 세대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구절도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과정을 보며, 독서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확장된다는 것을 느꼈다. 팀장으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토론을 이끈 경험이 의미 있었고, ‘같이 읽는 독서’의 가치를 다시 깨달은 활동이었다.
	2 조영서 2492067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이 바빠서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하지만 읽고 싶은 책은 구매했다. 구매하고 책장에 넣어놓은 채 방치된 책들이 한 손을 거뜬히 넘기는데 그걸 애써 외면했다. 독서클럽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다시 책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마음대로 어렵다고 생각하며 피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활동에 임했던 것 같다.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의 주제도 흥미로웠고 매 시간마다 인상깊은 구절과 토론 거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과정도 즐거웠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다.
	3 이세린 2492072	이슬아 작가 특유의 담백한 문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하나의 주체로써 본인의 가족과 직원들을 책임지는 모습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가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문체 속에서 슬프거나 기쁜 상황 모두 담담하면서도 작가만의 유머로 풀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4 이든나래 2492083	평소에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고 관심이 많았던 이슬아작가의 작품을 실제로 읽어보아서 매우 의미있었다. 또한 독서동아리나 독서활동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독서 모임에 큰 관심이 생겼다. 혼자 책을 읽고 끝낼 때보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시간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원 모두가 열정을 갖고 임해서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